

KIA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 '11'



투타 조화... 한국시리즈 직행 향한 막판 스퍼트
주중 롯데·삼성 원정이어 두산과 홈서 맞대결

가을 축제를 향한 호랑이들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20승을 끌어담으며 8월을 마감한 KIA 타이거즈가 주말 홈으로 두산을 불러 들어 한국시리즈 직행을 향한 속도를 높인다.
극적인 장성호의 대타 만루 홈런을 앞세워 난적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싸늘이 3연승으로 장식한 KIA는 이번주 적지로 찾아가 롯데·삼성을 상대한 뒤 금·토 홈에서 다시 한 번 두산과 맞붙는다. 새로 발표된 9월 잔여경기 일정에 따라 세 팀과의 대결을 펼치게 됐다.
8월 파죽지세로 월간 최다승(20승)의 기록을 세운 KIA의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넘버는 '11'. 18경기를 남겨 두고 있는 KIA가 앞으로 11승을 거두게 되면 2위 SK·3위 두산의 행보와 상관없이 무

조건 1위를 확정짓게 된다. 상대팀의 패배 수에 따라 매직넘버는 더 줄어 들 수 있다.
1일 시작에서 만나는 롯데와 2·3일 대구에서 대결을 갖는 삼성과는 올 시즌 마지막 대결이다. 4위 자리를 놓고 질박한 승부를 펼치게 될 롯데·삼성과의 기는 법을 깨달은 KIA의 기싸움이 팽팽할 전망이다.
원정 경기 승패의 키는 마운드와 쥐고 있다. 다승 1위 구본심이 어깨 피로누적으로 2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100승에 도전했던 이대진도 컨디션 난조로 2군에 내려가면서 선발진에 공백이 생겼다.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부름을 받은 좌완 투기 정용운, 선발에서 볼펜으로 자리를 옮긴 광정철, 좌완 박경태 등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 흐름이 좌우될 전망이다.

다행히 허전이 예상됐던 두산과의 박대치에서 로페즈가 암투승을 거둔데 이어, 윤석민이 7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진을 최대한 아껴두었다.
1일 서재응은 롯데 이정민과 맞대결을 갖는다. 서재응은 롯데전에서 6.28의 저조한 평균자책점으로 1패만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2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문제가 됐던 투구 밸런스가 잡히면서 피칭도 안정됐다.
1일 경기는 한방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월 무서운 기세로 홈런과 타점 사냥을 했던 김상현과 역시 4할에 육박한 타율(0.391)로 8개의 홈런을 쏟아냈던 최희섭은 지난 5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합작한 이대호·가르시아와의 힘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원정에서 돌아온 KIA는 4일과 5일 로페즈·윤석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31일 현재)

| 순위 | 구단 | 승 | 패 | 무 | 승률 | 연속 |
|----|------|----|----|---|-------|----|
| 1 | KIA | 70 | 41 | 4 | 0.609 | 3승 |
| 2 | SK | 66 | 47 | 5 | 0.559 | 5승 |
| 3 | 두산 | 61 | 51 | 2 | 0.535 | 5패 |
| 4 | 롯데 | 60 | 61 | 0 | 0.496 | 1패 |
| 5 | 삼성 | 57 | 60 | 0 | 0.487 | 3패 |
| 6 | 히어로즈 | 54 | 57 | 1 | 0.482 | 1승 |
| 7 | LG | 50 | 65 | 3 | 0.424 | 1패 |
| 8 | 한화 | 38 | 74 | 3 | 0.330 | 1승 |

민을 앞세워 다시 한 번 두산 공략에 나선다. 개막전에서 2연패를 당하며 시즌 초반 두산에 열세를 기록했던 KIA는 지난 주말 투·타에서 모두 두산을 압도하며 한국시리즈 예행 연습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두산과 4경기를 남겨둔 KIA는 주말 2연전을 통해 한국시리즈 직행과 기선제압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쫓게 된다.
한편 9월1일자로 엔트리가 확장되면서 조병현 감독은 포수 이성우, 투수 전태현, 외야수 최경환, 내야수 손정훈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기 중등 야구 군산, 진흥쫓고 우승

군산중이 진흥중을 누르고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중은 지난달 3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열린 '제3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2-1로 진흥중을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중은 1회 진흥중에 선취점을 내줬지만 5회 4개의 안타로 2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또 선발 전민성에 이어 마운드를 물려받은 김택중과 조현명이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지켰다. 이날 최고의 피칭으로 팀 승리를 이끈 군산중 김택중은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0개 학교가 참여한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KIA 타이거즈가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했다.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 김택중(군산중) ▲우수투수상 : 전민성(군산중) ▲타격상 : 이종하(화순중) ▲최다안타상 : 이종하(화순중) ▲최다홈런상 : 정태양(군산중) ▲최다도루상 : 김명진(화순중) ▲최다타점상 : 윤준식(진흥중) ▲수훈상 : 정세진(군산중) ▲감투상 : 김정운(진흥중) ▲미기상 : 권용철(동성중)



허미정이 지난달 31일 미국 오리건주(주) 포틀랜드에서 벌어진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골프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후 연장전중 두번째 홀에서 버디 퍼팅으로 승리를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미정 생애 첫 LPGA 정상

세이프웨이 연장 끝에... 한국 국적 선수로만 80번째 우승

허미정(20·코오롱)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연장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허미정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노스플레이스의 켈킨리지 골프장(파72·6천5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는 팽타를 휘둘러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미셸 레드먼(미국)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두번째홀에서 버디를 낚아 승부를 갈랐다. 2005년부터 2년간 국가대표를 지내며 2006년 퀸스 시리키트컵에서 우승을 차지, 유망주로 떠올랐던 허

미정은 2008년 프로로 전향해 LPGA 투어 퓨처스투어에서 실력을 가다듬었던 선수.
지난 해 퓨처스투어 상금 랭킹 4위에 올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LPGA 투어에 뛰어든 허미정은 통산 5승을 올린 페테르센을 꺾고 우승컵과 함께 25만5천 달러의 상금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허미정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해 7승을 합작하며 최강의 자리를 확인했다. 한국계와 한국 국적 선수들은 1988년 구옥희가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LPGA 투어에서 83승을 올렸고 한국 국적 선수로만으로는 80번째 우승이다.

선두와 4타차 공동 9위에서 3라운드를 맞은 허미정은 8번홀부터 12번홀까지 5개홀에서 무려 6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허미정은 연장 첫번째 홀에서 파를 지키지 못한 레드먼이 먼저 탈락하고 17번홀(파4)에서 치러진 두번째 연장전.
허미정은 티샷을 왼쪽 러프에 보냈지만 두번째 샷을 홀 2m 거리에 떨어뜨려 홀까지 4m를 남겨 둔 페테르센을 따돌릴 기회를 만들었다. 페테르센의 퍼트는 홀 바로 옆에서 멈춰 참작하게 친 허미정의 버디 퍼트는 천천히 굴러 홀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전날 선두에 1타차 공동 2위로 올라섰던 이선화(23·CJ)는 2타를 줄이는데 그쳐 위성미와 함께 공동 4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허미정 인터뷰

“재작년 플로리다 골프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났는데, 병훈이도 우승했나요?”
31일(한국시간) 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처음 우승컵을 차지한 허미정은 자신의 우승 못지않게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다. 허미정은 같은 날 미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안병훈(18)과 2년 전 인연을 떠올렸다.
대전 성천초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 2005년과 2006년 국가대표를 지내며 유망주로 성장한 허미정은 국내 프로무대를 거치지 않고 2007년 미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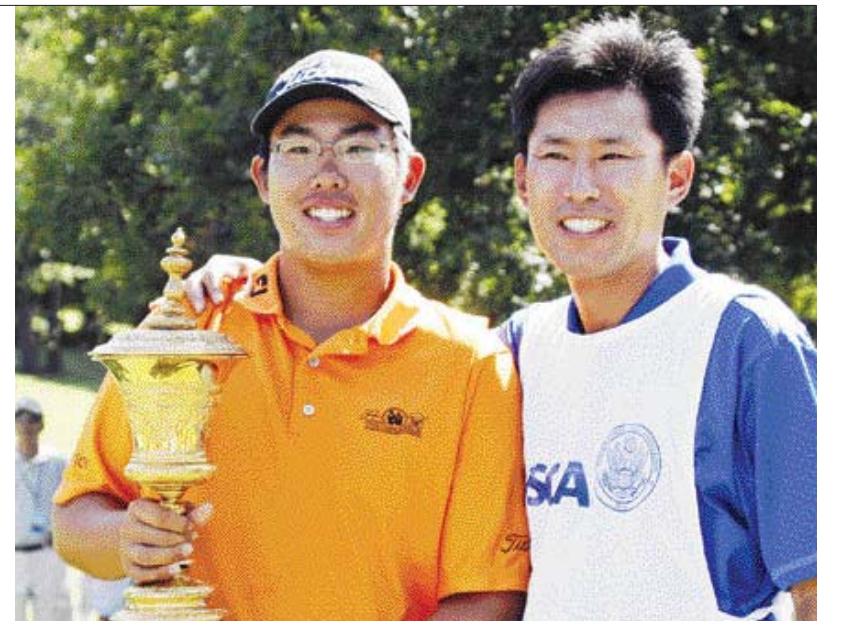
“美 진출후 병훈이 아빠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인재형 감독〉
로 건너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챔피언스 게이트 골프아카데미에서 LPGA 투어를 꿈꾸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2005년과 2006년 전국체전을 연속 제패한 아마추어 1인자였지만 낯선 땅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전 월평중학교 3학년 때 찾아온 드라이버 입스는 더 심해져 티박스에서는 손이 떨려 골프채를 잡지 못할 정도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영어 때문에 위

틀이가 됐다.
이 때 알게된 선수가 유명한 탁구 커플 안재형-자오즈민의 아들 병훈이었다.
허미정은 “저는 영어가 안돼 힘들었는데 병훈이는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라고 그 때를 회상하면서 “사실 병훈이보다는 안재형 감독님 도움을 많이 받았죠”라며 웃었다. /연합뉴스

‘탁구 커플’ 안재형-자오즈민 2세 안병훈 US 아마골프 우승

안병훈(18)이 제109회 US아마추어 골프대회 정상에 올랐다.
‘탁구 커플’로 유명한 안재형(44)-자오즈민(46)의 아들인 안병훈은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 힐스 골프장(파70·7천9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벤 마틴(미국)을 무려 7홀 차로 완파하고 이 대회 최연소 챔피언이 됐다. 지난해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19·캘리포니아)이 세운 18세 1개월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바꾼 안병훈(1991년 9월생)은 이 대회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처음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다. 또 2010년 아마추어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7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챔피언십에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우승한 데 이어 또 한국 선수가 US아마추어 챔피언십까지 석권하면서 이미 한국 선수들이 주름잡고 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뿐 아니라 남자 대회에서도 ‘코리아 파워’가 돌아온 셈이 됐다. 7세 때부터 이번 대회 캐디를 직접 맡은 아버지 안재형 대한항공 전 탁구감독을 따라 골프를 치기 시작한 안병훈은 2005년 12월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에 살고 있다. 키



안병훈(왼쪽)이 지난달 30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벌어진 2009 US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 매치 플레이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캐디 역할을 한 아버지 안재형(오른쪽)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86cm에 96kg의 건장한 체격에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300야드가 넘는 장타자인 안병훈은 2010학년도에 UCB클리 진학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